

일본고전문학연구의 문화론적 연구방법*

南二淑**

目次

1. 첫머리에
 2. 일본고전문학연구의 문화론적 연구방법
 - 2.1 문화란?
 - 2.2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 2.2.1 생활문화로서의 古典文學
 - 2.2.2 언어문화로서의 古典文學
 - 2.2.3 문화창조 원동력으로서의 古典文學
 3. 끝머리에
-

1. 첫머리에

고전이라고 하면 입문과정이 지리하고 어려우며 고리타분하다는 느낌이 강하기 때문인지 최근 들어 우리 사회에 탈고전문학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일본문학에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거의 모든 외국문학이나 국문학에 있어서도 ‘현대문도 제대로 하기 힘든 판에 고전은 무슨’하는 식의 시큰둥한 반응이 일반적이다. 또한 많은 학생들이 재미있고 학점 따기 쉽고 실용적인 과목을 선호하고 있어 대부분의 대학에서 고전 과목은 폐강 위기에 처해 있다. 물론 이와 같은 추세를 글로벌화의 의지라고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는 고전을 마치 반근대 혹은 전근대의 상징처럼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고전문학이 갖는 의의가 무엇이며,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하는 문제는 충실히 논의되어야 한다. 고전이란 쓰여진지 오래된 작품이긴 하지만, 오랜 세월이 걸쳐 훌륭한 작품으로 꾸준히 평가 받아온 것,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그 가치가 이미 검증된 탁월한 작품을 말한다. 이러한 작품들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 이 논문은 2003년도 하반기 군산대학교 교수 장기해외연수 경비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군산대학교 인문대학 동양어문학부 부교수

사람들의 가치관·감동·사고·동경·고뇌·사리 분별력 등 전반적인 상황에 깊은 관심을 두고 있으므로, 인간의 본질을 탐구하거나 인간이 어떤 삶을 영위해 왔는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특징 때문에 고전은 문학으로서 뿐만 아니라, 인격수양·교양·예술의 텍스트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전(古典)을 알기 위해서는 고전(苦戰)해야만 한다. 필사본과 이본의 문제, 주석을 둘러싼 해석의 다양성 등, 고전을 읽기 위해 통과해야 하는 난관은 아주 많다. 게다가,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여 깊고 넓은 해석의 맛을 음미하는데 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고전을 너무 신성시하고 절대시하는 느낌도 강하다.

지금까지의 많은 연구는 이런 관점에서 문학작품의 내재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문학적인 것의 본질을 규명하고자 하는데 중점을 두고 이루어져 왔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방식만으로는 고전이 현재와 미래에 무엇을 시사하며 왜 유효한가 하는 우리들의 삶과 직결된 부분을 간과하고 말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문화론적 접근방법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그렇게 손쉬운 것은 아니지만, 교실이나 대중에게 외면당하고 있는 우리고전문학의 현실을 타개하는데 활로를 마련해 줄 것이다.

또한 이처럼 문화론적 접근방법을 동원해 연구하게 되면, 우리 고전문학의 연구 내지는 교육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자국문화 연구와 외국문화 연구는 외관상 서로 무관한 것처럼 보이나 결코 그렇지 않다. 문화란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로 유사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형성되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2. 일본고전문학연구의 문화론적 연구방법

2.1. 문화란?

본고의 목적이 일본의 고전문학을 문화로 보고 접근하여 연구하는데 있으므로 우선 문화의 뜻을 정의하고자 한다.

문화란 의미는 모두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복잡다단하다. 일상용어나 전문 학술용어로 흔히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정확히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정의 내리기 무척 어려운 개념이다. 문화인·문화민족·문화유산·수렵문화·농경문화·한국문화·대중문화·음식문화 등 좁거나 넓은 다양한 의미가 조합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이 모두가 동일한 개념에 기초한 복합어도 아니다. 때로는 학문이나 예술분야를 지칭하기도 하고, 때로는

지성·지식·개화된 것이나 발전된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특정한 인간 집단 또는 한 지역이나 나라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생활양식을 총괄해서 지칭하는 말이기도 한다.¹⁾

따라서 문화에 대한 수많은 정의를 여기에 일일이 소개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 총체적 의미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문화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가 위에서 언급한 상황을 모두 포함해 정의 내릴 수 있는 전형적인 예를 타일러의 지적에서 찾을 수 있다. 타일러는 그의 저서 『원시문화』에서 문화를 ‘지식, 신앙, 예술, 법률, 도덕, 관습, 그리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인간에 의해 얻어진 다른 모든 능력이나 관습들을 포함하는 복합총체’라고 규정하고 있다.²⁾

타일러의 정의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문화는 인간 고유의 것이라는 점, 그리고 지식이나 신앙은 물론이고 기술까지를 포함하는 인간 고유의 모든 사물과 사건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타일러의 입장을 현대 인류학에서 계승하여 발전시킨 사람으로 화이트를 들 수 있다. 화이트는 문화가 인간고유의 산물이란 점을 더욱 구체화시켰다. 그는 인간과 동물의 다른 점은 ‘인간은 상징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동물’이라는 데에 있다는 것에 주목했으며, 이를 문화의 기초라고 파악했다. 그에 의하면 인간은 자유롭게 또한 인위적으로 의미를 창작하고 결정하며, 이러한 의미를 외계에 있는 사물과 사건들에 부여하는 능력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의미들을 포착하고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동물이라는 것이다. 구체적인 예로는, 보통의 물과 아무 차이도 없는 물을 종교의식에서 성수로 사용하거나 포도주에 예수의 피라는 의미를 부여하여 의식에 사용하는 행위 등이 있다.

이밖에 구드나이프와 같이 생활양식이 기초로 하는 관념체계 또는 개념체계에 주목하여, 문화란 구체적으로 관찰된 행동 그 자체가 아니라 그런 행위를 규제하는 규범의 체계라고 정의하는 사람도 있다.

이와 같은 정의를 고려하여 정리하면, 문화란 ‘한 인간집단의 생활양식’의 총체를 의미하며, 우리는 이 개념 속에서 인간·삶·개인·집단·사회·존재 등의 핵심어를 끌어낼 수가 있다. 바로 이 점이 고전문학을 문화론적 시각으로 바라보자고 주장하는 이유이다.

실제로 이러한 방법에 의해 문화가 지닌 다양한 속성을 여러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고, 지금까지 순수한 문학연구의 틀 속에서만 자리하고 있는 고전문학연구를 보다 현실생활 내지는 미래에 유용한 것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1) 한상복, 이문웅, 김광억 저, 『문화인류학개론』, 서울대학교출판부 1985, 3. 15 63~64쪽 참조

2) 앞의 책 65쪽

2.2.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야 할 것인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고전문학 교육과 일본의 고전문학 교육의 목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교육의 목표에 고전의 유용성에 관한 시사점이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두 나라의 교육목표가 별반 다르지 않으므로 장황하게 늘어놓는 것을 피하고, 여기에서는 일본의 교육목표를 살펴보기로 하자.³⁾

- 1) 고전을 읽는 측면에서 현대를 상대화하고, 고전 속에 담겨 있는 일본 민족의 보편적 견해, 느낌, 삶의 방식, 또한 현대가 잃어버린 것을 발견하여, 현대를 살아가는 지침을 얻는다.
- 2) 고전 속의 언어표현 등을 읽는 일을 통해, 언어에 대한 감각을 연마함과 동시에 일본어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언어생활의 개선에 도움이 되게 한다.
- 3) 새로운 문화 창조의 거울로서, 고전을 이해시키고, 고전을 가까이하는 태도를 갖게 한다.

1)은 고전 속에서 일본 민족의 보편적인 사물이나 사건의 이해방식·느낌·생활방식을 발견하고, 현대가 잃어버린 것을 고전 속에서 발견하여 현대를 살아가는 지혜를 얻어내자는 것이다.

2)는 고전의 언어표현을 통해 언어에 대한 감각을 닦고 더불어 일본어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언어생활의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3)은 서론 부분에서 약간 언급한 점과 중복되지만, 현재와 미래를 위한 새로운 문화 창조의 거울로 고전을 이해하고 즐길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위 세 가지 항목을 엄격하고 정확하게 구분하여 논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되지만, 1)은 생활문화로서의 고전문학 2)는 언어문화로서의 고전문학 3)은 문화창조의 원동력으로서의 고전문학이라는 항목으로 압축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위 세 가지 항목을 중심축으로 삼아 본론 소절의 제목으로 하고, 고전문학 연구방법에 있어 어떠한 접근방법이 가능한가에 관해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고자 한다.

3) 國語教育編纂委員會(1982)『國語教育事典』學灯社 233쪽

원문은 아래와 같이 되어 있다.

- 1) 古典の側から現代を相對化し、古典の中に日本民族の普遍的なものの見方、感じ方、生き方を発見したり、また現代が失ったものを発見したりすることを通して、現代を生きる糧を得る。新しい文化創造の鏡として、古典を理解させ、古典に親しむ態度を育てる。
- 2) 古典の言語表現を読むことを通して言語に對する感覺を磨くとともに日本語についての理解を深め、言語生活の改善に役立てる。
- 3) 新しい文化創造の鏡として、古典を理解させ、古典に親しむ態度を育てる。

2.2.1 생활문화로서의 古典文學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지금까지 한국인의 일본 고전문학 연구는 대부분 문학작품의 내재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문학적인 것의 본질을 규명하고자 하는데 힘을 쏟아왔다. 이러한 연구방법 역시 학문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지만, 이제는 이러한 연구방법 이외의 방법도 모색해야 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서두 부분에서도 언급했지만 학습자들의 요구가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일본문학 연구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인문학의 큰 흐름 역시 지금까지 중시되어 왔던 객관·절대·진리 등의 용어는 용납되지 않는 쪽으로 흐르고 있다.⁴⁾ 이는 불변의 진리보다 실존해 있는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당면의 문제가 더 중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문학과 생활은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고킨와카슈(古今和歌集)』(서문⁵⁾)이나 『논어』의 ‘양화⁶⁾’편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인간을 중심으로 한 서양의 고대 그리스 고대문학에서도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다. 고전문학을 살펴보면 작품 속에 생활이 그대로 용해되어 있음을 여기저기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는 문학이 생활에서 출발하여 일상의 삶의 폭과 깊이를 더해 주었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그러면 문학을 생활문화의 근간으로 보고 연구하는 방법으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그야말로 다양한 방법들이 동원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우선 문학이 인간의 일상행위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작품 및 작품활동을 고찰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구성원들의 의식이나 삶에서 문학 작품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어떤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을 때 비로소 그것을 문화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바꿔 말하면, 일상적 필요의 관점에서 문학을 바라보거나 왜 작가가 그와 같은 표현을 했는지, 그와 같은 작품을 썼는지에 대한 의문으로 문학을 바라보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시조와 같은 일본의 전통시가인 와카에 주목하여 생각해 보자. 일본인 심성의 표현으로서 ‘야마토 우타’라고 일컬어지는 와카는 일본의 문화전통의 핵심이

4) 전경갑 오창호 지음 『문화적 인간 인간적 문화』 푸른사상 2003.7.30

이 책은 최근 인문 사회과학 분야의 학문의 흐름의 경향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근·현대 학문의 흐름을 주도한 걸출한 사상가들을 중심으로 대중문화 현상의 이면에 은폐된 경제적 및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비롯한 다양한 이데올로기와, 이를 실어 나르는 상징적 기호들과 그 의미작용을 요약 해설하고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책이다.

5) 小島憲之·新井榮藏 校注(1989) 『古今和歌集』 岩波書店 4쪽 「仮名序」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와카는 사람의 마음을 바탕으로 하여 갖가지 말이 노래로 표현된 것이다. ……중략…… 아무런 힘도 들이지 않고, 천지의 신들을 감동시키고, 죽은 사람의 영혼들조차도 감동시키고, 남녀의 관계도 부드럽게 하며 사나운 무사의 마음도 위로하는 것이 와카이다.’

6) 金谷治譯注(1990) 『論語』 岩波文庫 242쪽 「양화」편에 ‘아이야 왜 시를 배우지 않느냐? 시를 배우면 감흥을 일으킬 수 있고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으며, 벼를 사귄 수 있고, 자신의 정서를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다. 가까이서 아버이를, 멀리서 군주를 모실 수 있고, 또한 길짐승 날짐승, 풀과 나무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느니라’하는 구절이 있다.

되어 현대에 이르러서도 중시되고 있는 문학이다. 그 표현 기법은 헤이안 시대에는 일상 속에서 사회적 교제 수단으로서 큰 역할을 하였고, 10세기 이후의 산문 문학 성숙에도 크게 기여했다. 무로마치 이후의 렌가(連歌)와 요요쿠(謠曲), 에도의 하이쿠(俳句) 등 일본의 전통문학과도 깊은 관련을 맺고 있고, 근대에 이르러서는 단카라는 명칭으로 여러 계층의 사람들에게까지 사랑을 받고 있는 장르이다. 시대의 전환기에 단카부정론이 대두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국각지에서 발행되는 단카집은 해마다 500여종을 넘고 있다. 주요 일간신문 투고란이 상설되어 있어 방대한 수의 작가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의 시조와 달리 일본의 전통시가인 와카가 아직도 이처럼 현대인들에게 사랑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와카가 취급하는 내용들과 관계가 깊다고 생각된다. 일본의 전통 와카는 남녀간의 애정, 자연에 대한 친근감, 계절의 추이를 주된 내용으로 삼았다. 그런데, 단카 혁신운동이 일어난 이후의 근대 와카는 기쁨이나 슬픔, 방황, 감정의 굴절, 명상의 비애 등 인생의 잡다한 사건에 대한 깊은 성찰과 같은 일상생활에서 마주하는 일,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사생하는 사실적 세계까지도 포함시켜 다루는 장르로 발달됨해 있다. 시대적 변화의 요구를 무시하지 않은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된다.⁷⁾ 이러한 것들에 관해서도 면밀한 검토와 고찰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나아가 간단하고 짧은 형식, 서로 모여 작품의 완성도에 관해 의견을 나누는 가회(歌會)의 운영방식 등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헤이안 시대의 와카는 미적 세계를 형성하는 문예품의 역할도 해내고 있었지만 사교수단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와카를 읊지 못하면 연애와 결혼도 힘들었고 관혼상제 때 예의를 차릴 수도 없었다. 중세와 근세로 내려가면 ‘도(道)’라든가 ‘광(狂)’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교카(狂歌), 도가(道歌) 등이 등장한다. 교카란 일상생활이나 비속한 경우에 처한 현실을 골계화 하여 우스꽝스럽게 희화하는 노래이고, 도가는 말 그대로 인류이나 도덕을 가르치는 교훈가이다. 이외에도 와카의 신비한 힘을 빌어 주문을 읊는 주문가(呪文歌), 정치나 정계를 비판하는 라쿠가키(落書 또는 落首라고도 표기) 등이 있다.⁸⁾

그뿐 아니라 와카설화 등을 조사해 보면, 와카를 통해 불편한 가족관계와 인간관계로부터 구원받는 경우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노래를 통한 교회는 잔잔한 감동에 바탕을 둘 때 효과적인 경우가 많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예를 중심으로 와카가 우리들 삶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였으며, 현대에 어떻게 계승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그밖에 존재·사회·공동체의 문제에 주목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얽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문학에는 성차별이나 계급이라는 족쇄 속에서 생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인간의 진실이

7) 武川忠一(1994) 「近代への歩み」和歌文學講座9『近代の短歌』勉誠社 25~41쪽 참조

8) 井上宗雄(1993) 「和歌の實用性と文芸性」和歌の本質と表現』勉誠社 109~130쪽 참조

담겨 있다. 이런 점에 주목하여,

- 여성(남성) 존재의 인식
- 여성상(남성상)의 형상화
- 권력과 계급의 갈등 양상

등에 관해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현대사회는 자본주의의 발달로 우리를 생리적 욕구의 노예로 전락시키고, 파괴적 경쟁심을 조장하여 타산적이고 이기적 욕구에 사로잡힌 존재로 전락시키고 있는 면이 강하다. 이런 점에 주목하여,

- 나와 타자의 관계
- 가정과 교육 문제
- 인간의 고독과 불안
- 옛 사람들의 풍류의식

등을 테마로 하여 고찰하여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이 외에도 생태계 보전이나 환경문제에 주목하여 보면, 문학으로부터 많은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으리라 본다. 주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산업사회를 지탱해 온 이념 중의 하나는 인간중심적 사고였다. 그동안 무차별적인 자연훼손이 감행되고 그 폐해는 다시 우리들 인간의 존재를 위협할 정도로 심각해져 있다. 노장(老壯) 사상을 근간으로 하는 동양적 사고방식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일본문화 역시 동양문화권에 속해 있고, 고전작품 속에는 자연 친화의 사상이 잘 드러나 있으며,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추구하는 옛 선인들의 정신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사유의 근간을 제시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한 시대의 문학에서 고난에 대응하는 삶의 방식을 발견하는 것이 문학을 인간과 생활 속으로 돌려놓는 일이며 앞으로의 시대가 요구하는 지식의 모습을 갖추는 일이기도 할 것이다.

2.2.2 言語文化로서의 古典文學

문학작품은 언어를 재료로 삼아 구성될 뿐 아니라, 언어를 새롭게 구성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호보완적 성격 때문에 문학 작품은 언어 학습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기도 하고 언

어에 관한 이해가 문학작품을 읽는데 효과적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고전문학은 그 나라의 정제된 언어문화, 언어생활사가 담겨 있는 텍스트이다. 그러므로 잘 연구해 활용하면 현대인의 언어생활, 사고력증대, 의사소통 등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먼저 고전문학에 있어서의 언어와 사유에 관해 생각해 보자.

일본의 헤이안 시대의 왕조문학연구에 일생을 바쳐온 아키야마 겐 씨가 『국문학』이란 잡지에 기고한 글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인간이 말 속에 태어나 언어 속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의해 사회적 존재가 될 수 있다. 일본인이라는 우리의 존재의 증명은 일본어 역사에 양육되어져 왔다고 하는 그 사실에 있다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⁹⁾

인간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언어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인간의 사고와 언어가 얼마나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가를 단적으로 설명해 주는 좋은 예이다. 오늘날 사고의 빈곤은 곧 교육의 문제로 연결되고 있지만 사고력이 천부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비고츠키는 자폐증 환자를 대상으로 사고와 언어 발달의 관계를 연구한 후 사고발달은 언어에 의해 결정된다는 보고를 하고 있다.¹⁰⁾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좋은 고전문학 텍스트를 선정하여 사고력 신장에 도움이 되는 명문이나 명구를 연구해 분류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예는 일본에서 3년 전 베스트셀러가 된 사이토 다카시(齋藤孝)의 『聲に出して讀みたい日本語』를 통해서 알 수 있다.¹¹⁾ 교육학자인 그는 일본에는 과거에 좋은 문장을 암송 낭독하는 문화가 융성하고 있었다는 점에 착안하여, 낭독과 암송의 효과에 대해 연구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좋은 문장을 암송하고 낭독하면 마음과 몸이 건강해진다는 연구 결과에 의거하여 암송과 낭독하기에 적합한 문장을 선정하고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분류해 위의 책을 완성했다.

9) 秋山虔(1977) 『日本の言葉の粹』『國文學』學燈社 9쪽

원문은 아래와 같다.

言葉というものは人間によって作られたものではなく、かえって言葉の中に人間は産み出され、言葉の世界を生きることによって社會的存在となりうる。日本人である私達の存在の証しは日本語の歴史に育まれてきたというその一点にあると言わねばならないのである。

10) L.S.Vigotsky, (신현정 옮김, 1985) 『사고와 언어』 성원사 51쪽 참조

11) 齋藤孝(2001) 『聲に出して讀みたい日本語』草思社

- 一 배에서 소리를 끌어낸다 (腹から聲を出す)
 - 二 동경하여 마음을 설레게 한다 (あこがれに浮き立つ)
 - 三 리듬이나 템포를 탄다 (リズム・テンポに乗る)
 - 四 마음으로 음미한다 (しみじみ味わう)
 - 五 계절과 정경을 피부로 느낀다 (季節・情景を肌で感じる)
- ...후략...

고전작품이 옛 선인들의 지혜가 담긴, 정제되고 잘 다듬어진 텍스트란 점에 주목하여 이를 교육적으로 활용하려는 그의 의도가 대중의 요구와 일치하게 된 것이라 생각된다.

그런데, 여기에 발췌된 문장들은 그 대부분이 고전작품에서 취해진 것들이다.¹²⁾ 책의 마무리부분에서 이와 같이 고전작품에 등장하는 문장이 지닌 장점에 대해,

행간에 여유가 있고 문장이 짧아 기억하기 쉽다

(行間にゆとりがあり、文章も短くて覚えやすい)

끊어읽기에 적합하다 (歯切れが良い)

설득력이 있다 (説得力がある)

임기응변에 적용할 수 있다 (臨機応変に使える)

사려깊은 사람이 되게 한다 (思慮深い人にさせる)

와 같이 시사적인 지적을 하고 있다.

고전작품을 오늘날의 언어생활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문학 속에서의 소통이 필연적으로 언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작품 및 작품의 소통과정을 이루고 있는 언어에 대해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연구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

- 전달자가 이야기를 표현하는 언어 사용 방식
- 작품 속 인물사이의 의사소통을 실현하는 방식
- 고전 산문에 발현된 언어문화

다음으로 언문불일치가 민족문학의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주목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이 문제는 헤이안 여류문학 융성과 관련지어 생각하면 해답을 얻을 수 있다. 일본문학 연

12) 齋藤孝(2001) 『聲に出して読みたい日本語』 草思社, 199-211쪽 참조

구자라면 누구나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지만, 헤이안 시대 중기에 여류문학이 꽃을 피운다. 당시의 우리나라 문학상황을 보면 고려가요를 제외한 분야에서 여성작가들이 활약한 예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물론 헤이안 여류문학의 융성의 원인은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자국어인 히라가나가 발달하여 여성들도 자신의 감정을 자신들의 언어로 기록할 수 있다는 사실과 관계가 깊다고 생각된다. 그에 반해, 우리는 히라가나에 준하는 이두가 있었음에도 한문 우대로 쇠퇴해 버려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할 수 표현할 수 있는 문자를 갖지 못했다. 우리의 생각을 그대로 적을 수 있는 문자를 갖지 못했다는 사실과 민족문학 빈곤현상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에 대해 고찰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조선조에 들어와 세종대왕이 한자사용으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알고 한글제정을 서두르지만, 그때까지 누구하나 본격적으로 자국어 부재에 관한 문제점을 제기한 사람은 없었다. 겨우 18세기 들어 박지원의 『鶴汀筆談』¹³⁾ 박제가의 『柳惠風詩集序』¹⁴⁾에서 이와 같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박지원은 한문을 구사해 문장을 쓰는 일이 조선인에게는 일종의 번역과 같다는 점, 그 때문에 조선인이 쓴 글은 모호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박제가도 한문으로 우리말의 진실된 감정이나 생생한 느낌을 그대로 전달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말과 글의 불일치와 민족문학의 흥룡 관계는 어떻게 작용하는지, 한문학이라는 형식에 갇혀 작품 활동을 하는 것과 자국어로 작품 활동을 하는 것의 차이는 어떠한 것인지에 관한 고찰도 이루어져야 하리라 생각된다.

세계 최초의 장편소설인 겐지모노가타리가 11세기 초엽에 일본에서 탄생한 것은 작가의 천부적 재능과 문학적 환경의 수혜에 의한 것만은 아니다. 이러한 접근방식을 통하면 국어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게 되고, 보다 더 우리말 같고 다듬기에 힘쓰게 되며, 나아가 좋은 문학 작품 생산에 힘쓰게 될 것이다.

또한, 일본의 고전문학의 언어들은 장르 사이를 넘나들며 상호 교섭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런 점에서 어떤 장르의 언어들이 어떤 양상으로 그 텍스트에 들어와 결합하고 있는지, 이

13) 우리 동방에서 글을 짓는 사람들은 (사물과 언어가 서로) 잘 맞지 않아 틀리기 쉬운 한자를 가지고 이해하기 어려운 우리말로 다시 번역하게 된다. 그 글의 의미가 애매모호하고 그 수사가 영성한 것은 여기에 연유한 것이 아니겠는가?(『鶴汀筆談』)

현대어역은 안대희의 논문 「한문학에서의 민족적인 것과 한국적인 것」(한국고전문학회(2001)편 『국문학과 문화』 월인 312쪽 참조

14) 현재의 이른바 무당의 가사와 광대의 웃고 매도하는 사설, 그리고 시정과 여항의 친근한 말도 선량한 마음을 일으키고 사악한 생각을 정계하는 힘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시경(詩經)』의 시가 가진 의미를 여전히 간직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붓을 들어 그 내용을 한문으로 번역하고 나면 말이 비슷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결결하고 따분하여 진실한 감정을 느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소리와 글자가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이다.(『柳惠風詩集序』) 현대어역은 앞의 책 313쪽 참조

전 장르 속에서의 기능과 의미는 어떻게 변용되고 있는지 등에 관해서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각 장르의 언어들이 어떻게 작품 속에서 기능하며 어떻게 통합되어 작품의 전개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해 주목하면 문학에서 어떤 성격의 언어들이 동원되는지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밖에도 와카나 시문학의 경우를 중심으로 생각하면, 시어와 조어법의 문제·수사법·운율의 효과·문체·구어단가의 등장어의 영향 등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시각에서 문학작품을 바라보면 연구방법의 영역은 무한히 확대될 것이다.

2.2.3 문화창조 원동력으로서의 고전문학

전통은 옛 것을 전하는 것, 혹은 예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다. 반면 창조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 이러한 인식 때문에 두 가지 개념은 상반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무로부터의 창조란 있을 수 없다.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창조란 전통을 바탕으로 하여 여러 가지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얻어진 것이다. 특히, 문학의 경우 대부분이 재창조이며 완전히 독창적인 문학이란 없다.

예를 들어, 일본의 고전의 금자탑이라 일컬어지는 겐지모노가타리를 예로 들어보자. 겐지모노가타리는 이미 많은 학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 작품은 그 이전의 역사적 사실과 선행작품인 『竹取物語』 『伊勢物語』 『宇津保物語』 『古今和歌集』 『史記』, 白居易의 『長恨歌』 등의 문학적 요소를 수용하여 만들어진 작품이라고 알려져 있다. 400자 원고지 2500매에 해당하는 분량으로 문장도 뛰어나다. 인생의 꿈과 덧없음, 가문의 영광과 여성의 삶의 문제를 주제로 극적인 구성 그리고 치밀한 심리묘사 등으로 그 이전의 작품을 충분히 압도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인지 겐지모노가타리가 이후의 문학작품에 끼친 영향은 지대하다. 특히, 17세기 후반에 활약한 작가들은 겐지모노가타리를 서민 내지는 상인들이 문화적 주류를 이루는 시대적 상황과 요구에 맞게 재해석하여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냈다. 치카마츠 몬자에몬의 가부키·분리쿠의 각본, 이하라 사이카쿠 유곽을 무대로 한 소설인 『好色一代男』이란 소설작품들이 그러하다. 뿐만 아니라, 와카·요쿄쿠(謠曲)·하이카이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고 근대에는 가와바타 야스나리(川端康成), 호리타츠오(堀辰雄), 다니자키준이치로(谷崎潤一郎) 작품이 겐지모노가타리의 영향을 많이 받았음을 많은 학자들이 지적하고 있다.¹⁵⁾

이러한 점에 입각하여 작품내용의 수용 양상이나 변용과정을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작가들의 창작과정을 알 수 있고, 글쓰기를 전문가의 영역으로 돌리고 창작에 두려움을 느끼는 학습자들을 자연스럽게 글쓰기에 도전할 수 있게 할 수도 있

15) 今井卓爾外(1992) 『源氏物語の本文と受容』 勉誠社 329~406참조

을 것이다.

겐지모노가타리 수용 양상의 예는 비단 문학에서만 볼 수 있는 현상은 아니다. 일본의 중세사람들은 소설뿐만 아니라, 회화나 의상에까지 겐지모노가타리의 세계를 적용하고 있다. 근세 에도시대에는 유곽에서 일하는 게이샤들에게 겐지모노가타리에 등장하는 여주인공의 이름이 붙여지기도 한다. 겐지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여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무라사키노 우에(紫の上)나 오보로즈키요(朧月夜)와 같은 게이샤의 경우에는 돈 많은 상인만이 넘볼 수 있었다고 한다.

이처럼 일본의 경우, 고전문학은 일본인의 미의식 내지는 놀이의 문화화도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미의식이나 놀이 문화 등에 관한 연구는 일본연구자들에 들에 비교적 많은 연구들이 행해지고 있지만, 우리의 미의식이나 놀이문화와 비교하는 시각은 드물다고 생각된다. 일본인의 미의식에 관하여 가와바타 야스나리는 다음과 같은 지적을 하고 있다.

일본은 하나의 완전한 형식을 가진 문화를 낳아 왔고, 그 미 속에 진리를, 진리 속에 미를 찾아내는 시각을 발달시켜 왔다. 옷이나 음식 젊은이들의 문화를 보아도 다른 나라에서는 미학이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에 불과한데, 고전문학에 있어서는 미학이 뛰어난 역할을 하고 있다. 시대에 따라 미는 도덕이고 진리이기도 하다.¹⁶⁾

그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일본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미의식이 발달한 나라라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일본에 비해 이웃나라인 우리나라는 미의식보다는 유교와 불교의 사상(현대에는 기독교 사상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이 성숙 발달해 있고, 문학에 관해서도 미의 완결체란 인식보다는 도(道)를 담는 도구란 인식이 강하다. 동아시아라는 같은 문화권 안에 있으면서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왜일까? 문학이나 문화의 발달사에 주목하며 이러한 차이를 밝혀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아울러 일본인들이 주장하는 미의식이나 미적 이념의 실체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살펴가며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에 사로잡혀 있으면 작품이 지닌 다양한 요소를 간과할 수 있고 현실적으로 환상일 수밖에 없는 영원불변한 미의식이나 미적 이념이 존재하는 듯이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인의 미의식이나 미적 특질을 논할 때에도 주의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된다.¹⁷⁾

16) 원문은 아래와 같다.

日本は一つの完全な形式をもった文化を生んで来たのであり、その美のなかに眞理を、眞理の中に美を見抜く視覚を發達させてきた。衣・食・若者の文化を見ても他の國では美學が補助的な役割しかしていないのに、古典文化においては美學が優越な役割をしている。時代によっては美は道德であり、眞理でもある。

메모한 것을 인용했는데 출전을 적어주지 않아 밝힐 수가 없다. 하지만 이와 같은 취지의 글은 노벨상 수상 소감을 밝힌 <美しい日本の私>에서도 엿볼 수 있다.

17) 한국고전문학회(2001)편 『국문학과 문화』 월인 299쪽 참조

다음으로 세계를 놀라게 하는 애니메이션에 관해 주목해 보자. 포틀랜드 주립대 교수인 안토니오 레비는 그의 저서 『외계에서 온 사무라이』에서 일본 애니메이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본 전통문화의 상징에 관해 알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일본의 신화와 설화가 애니메이션에 어떻게 변형되고 응용 내지는 동원되어 왔는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주인공들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대상과 조우하고 사건을 일으키며 다른 나라의 여러 종교와도 한데 어울릴 수 있는데, 이러한 점이 일본 애니메이션에 대한 상상을 풍부하게 하고 아울러 선악의 이분법으로부터도 자유롭고 다양한 캐릭터를 만들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¹⁸⁾

이와 같이 고전문학은 현대의 미디어 문화나 영상문화에 응용될 수 있는 보고(寶庫)이기도 하다. 실제로 일본 고전문학에는 죽음이나 주술이 동원되고 원령 요괴 등의 초현실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 있다. 이러한 요소를 응용하여 실제로 갖가지 요괴가 등장하는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과 같은 명작이 만들어지는 것이다.¹⁹⁾

얼마 전에 중국문학 연구자들이 중국 北宋 초기인 978년에 완성된 중국 伝奇文學의 금자탑 『太平廣記』全500卷을 번역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일본의 경우도 요괴학이란 분야가 있을 정도로 괴기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데, 아직 한국의 일본문학 연구자들에 의해 이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없다. 차근차근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집대성하고 앞으로의 새로운 문화의 창출에 응용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와 같이 보면, 고전 작품이 모두 소외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일부 작품들은 문자의 텍스트를 넘어서 연극과 영화, 만화로 재생산되고 심지어는 개그로 패러디화 된 것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 고전 모노가타리의 게임화 모색
- 고전이 품은 광고
- 원귀의 문제를 다룬 소설을 스텔러물로

등 다양한 방법을 찾다 보면 끊임없이 텍스트를 필요로 하는 미디어 문화에 고전은 필수불가결한 존재가 될 것이다.

미디어 시대가 추구하는 일종의 가상 현실에 대해 과학자들은 서구의 유토피아론을 들어 설명하고 있는데, 그들이 즐겨 인용하는 프랜시스 베이컨(F.Bacon)의 『새 아틀란티스』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18) 안토니오 레비(2000) 『외계에서 온 사무라이』 초록배 매직스 77~136쪽 참조

19) 문화인류학자이며 요괴학의 전문가인 小松和彦氏가 이 영화의 제작에 고문으로 활동했다는 후문이 있다.

우리 체제의 목적은 세상의 원인들에 대한 지식을 얻고, 사물들의 비밀한 움직임을 발견하며, 인간의 제국을 확장하여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²⁰⁾

그들은 이것을 최근의 정보화 사회를 형성시킨 동인 중의 하나인 유토피아론의 전형으로 규정하는데, ‘우리 체제의 목적은 세상의 원인들에 대한 지식을 얻고, 사물들의 비밀한 움직임을 발견하며’의 부분은 인문학이 담당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인간의 제국을 확장하여 모든 것을 가능하게’하는 부분은 과학이 담당하여 그것을 가시적인 것으로 만들어 보여준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미디어 문명이 아무리 발달해도 그것이 구축하고자 하는 세계의 원천은 인문학 그 중에서도 문학에서 구하게 될 것이다. 인문학의 위기 운운하는 마당에 더할 나위 없이 위안이 되는 말이다.

우리의 고전 작품에는 미디어 시대의 문화가 구축해내고자 하는 인물과 사건의 원형들이 폭넓게 내재해 있다고 본다. 이와 같은 점에 주목하여 접근해갈 때 고전은 우리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오고 그 효용성은 더욱 증대될 것이다.

3. 끝머리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전문학은 인간의 삶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으며,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삶을 영위해 왔는지를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전문학은 고등교육의 시장화 내지는 실용주의 중심의 지식교육 중시라는 현실에 떠밀려 점점 외면당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지금까지 행해져 온 고전문학 연구나 교육의 방향을 수요자 중심으로 바뀌어, 문화론적 접근방법을 시도할 필요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문화론적 접근방법’이라 명명한 것은 ‘문화’란 말에 ‘인간’ 혹은 ‘인간의 삶의 방식’이란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접근방법에 의해 고전문학의 활로를 모색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방법에 대해서는 일본 고전문학 교육의 목표를 기준으로 생활문화, 언어문화, 문화 창조의 원동력이란 항목으로 분류해 보았다. 편의상이지만 이렇게 분류해 생각하다 보면 고전문학의 가치를 입체적으로 다양하게 거론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서이다.

이처럼 고전문학을 문학적 차원이 아니라 삶의 차원에서 접근해 연구하다 보면 현재와 미래의 생활에 많은 시사점을 제시해 주는 유용하고 참다운 가치를 지닌 자산으로 재인

20) 주 14) 앞의 책 388쪽

식되고, 현장에서의 고전문학에 대한 관심이나 교육은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믿는다.

【參考文獻】

- 김광익 외(1998) 『문화의 다학문적 접근』 서울대학교출판부 전권 참조
- L.S.Vigotsky저· 신현정 옮김(1985) 『사고와 언어』 성원사 51쪽 참조
- 안토니오 레비(2000) 『외계에서 온 사무라이』 초록배 매직스 77~136쪽
- 전경갑 외(2003) 『문화적 인간 인간적 문화』 푸른사상사 전권 참조
- 한국고전문학회(2001) 『국문학과 문화』 월인 312~313쪽
- 한상복 외 2인 공저(1985) 『문화인류학개론』 서울대학교출판부 63~65쪽
- 秋山虔(1977) 「日本の言葉の粹」 『國文學』 學燈社 9쪽
- 有吉保 外 責任編集(1993) 和歌文學講座1 和歌の本質と表現』 勉誠社 109~130쪽
- 有吉保 外 責任編集(1994) 和歌文學講座9『近代の短歌』 勉誠社 25~41쪽
- 今井卓爾外(1992) 『源氏物語の本文と受容』 勉誠社 329~406쪽 참조
- 齋藤孝(2001) 『聲に出して讀みたい日本語』 草思社 199~211쪽
- 關口裕子 외(2000) 『文學に見る日本女性の歴史』 吉川弘文館 25~76쪽
- 日本古典文學研究會編(1983) 『研究資料日本古典文學 ①物語文學』 明治書院 136~235쪽
- 日本古典文學研究會編(1983) 『研究資料日本古典文學 ⑦狂歌』 明治書院 369~372쪽
- 金谷治譯注(1990) 『論語』 岩波文庫 242쪽
- 小島憲之·新井榮藏 校注(1989) 『古今和歌集』 岩波書店 4쪽

要 旨

周知のごとく古典文學とは時間と空間を越えてその價値が檢證されて人間の本質を探求したり、これまで人間がどんな生き方をしていたのか把握するのに役に立つ特徴を持つ。それにも関わらず、最近脱古典文學現象が目立っているのは高等教育の市場化現象、用中心の知識重視現象で付加價値の高い方に學生が集まっていくからであろう。そういう點から、これまで行ってきた古典文學の教育や研究の方向を需要者中心に變え、古典の實用性についての研究が必要であると思われ、文化論的接近方法の必要性について考えてみた。「文化論的接近方法」と名付けたのは文化という言葉に「人間」あるいは「人間の生き方」と言う意味が含まれており、このような接近の方法が以上で取り上げた問題を解決してくれる手がかりになると思われたからである。

その際、何をどうすればいいかということについては、古典教育の目標の項目を軸にして生活、言語、文化創造の鏡として分類して見た。便宜上だが、このように項目分けして考えると、古典文學が有している様な價値や意味を立體的に取り上げることが出来るからである。

この様に、文學を文學の次元のみでは無く、社會的な次元から論ずる事によって古典の眞の價値が見えてくるし、古典文學が古い老年の書ではなく多くの示唆を内藏したすばらしいものであると認識されるであろう

キーワード：古典文學 研究, 文化論的 接近方法, 生活, 言語, 傳統, 文化創造

투 고 : 2005. 2. 28

1차 심사 : 2005. 3. 12

2차 심사 : 2005. 4. 2

住 所 : 전북 군산시 미룡동 산68 군산대학교 동양어문학부

電 話 : 063-469-4356, 010-6294-8447

e-mail : ysnam@kunsan.ac.kr